

# 비판사회학 소식지

평등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 회장 인사말



임운택  
(비판사회학회 회장/계명대 사회학과)

2022년 1년간 비판사회학회를 책임지게 된 신임회장 임운택 교수입니다. 비판사회학회는 지난 1984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산사연)로 출범하여 2007년 현재의 비판사회학회로 이름을 개칭해오면서도 사회의 분석과 진단을 넘어 사회변화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학회만의 자부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연구자들의 관점과 지향에 따라 진단과 개입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과 실천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우리 학회는 이를 비판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통해 소통해 왔습니다.

36년에 달하는 학회의 연혁은 우리 학회가 해쳐나온 시간의 무게만큼 앞으로 마주할 막중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여전히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기에 적절한 세월의 무게라고 판단됩니다. 학회의 주춧돌을 놓았던 선배 세대는 절차탁마한 학문적 성과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으로 상이한 환경에서 출발하여 현재 연구를 주도하는 중심 세대는 새로운 문제 인식과 접근으로 비판과 진보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학술 세대의 변화는 단순한 세대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연구자 세대 간의 줄탁동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격렬하고 갈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연구자의 강력한 무기이자 학문 발전의 자양분인 한 갈등과 소통은 학회가 담당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면 계속)

발행인: 임운택 / 편집인: 홍성태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684 민주노총  
서울본부 307호  
Homepage: www.criso.or.kr  
E-mail: sansahak1984@gmail.com  
전화: 02-3148-6220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학회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지난 2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학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비판의 재구성’과 같은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었고, 학부,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 세대를 대상으로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하는 등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의 학회는 크게 세 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연구자들이 개인의 성과를 관리하느라 연구의 상호 공유가 미흡했습니다. 글로벌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문제 분석의 다차원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연구자의 연구작업은 이전보다 더 파편화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회 분석의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 진단 연구팀과 개입의 방향에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와 결과는 콜로키엄과 학술대회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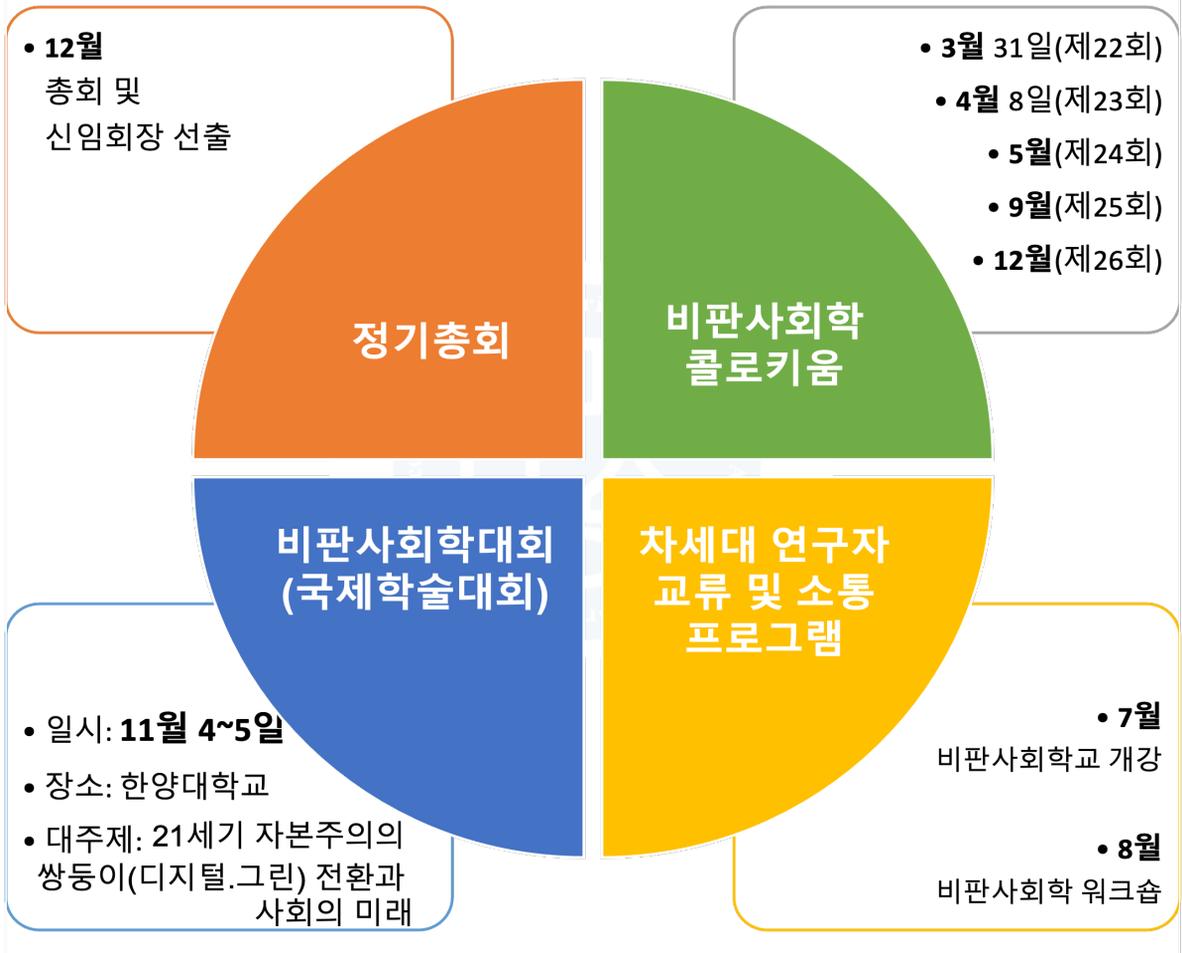
둘째,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자본주의 대전환 시대에 주요 국가들의 이행기 전략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고,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의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가을 학술대회에는 대면 회의(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를 전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기존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넘어 자본주의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 전환’이 전면화되고, 사회 전환의 새로운 계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폴라니의 개념을 빌어 표현하면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시기의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자본주의 주요국가의 중견 연구자를 초빙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개별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전환의 흐름을 비교하는 비교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술연구자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하계 워크숍’과 ‘비판사회학교’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계 워크숍은 멘토-멘티로 운영되는 현재의 세미나 방식을 탈피하여 1박2일의 캠프 운영을 통해 선후배 연구자 간의 소통을 두껍게 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성공리에 마쳤던 비판사회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학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임원진과 운영위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후배 연구자들의 관심과 질책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해 적지 않은 학술행사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 임운택 드림

2022년 학회 주요 운영계획



제22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 제22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풍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구조적 쟁점

3월 31일(목) 오후 7시

참가 | Zoom (회의실 ID 919 2651 3503 / 암호 516444)

**사회** 이정연 (서울여대 교양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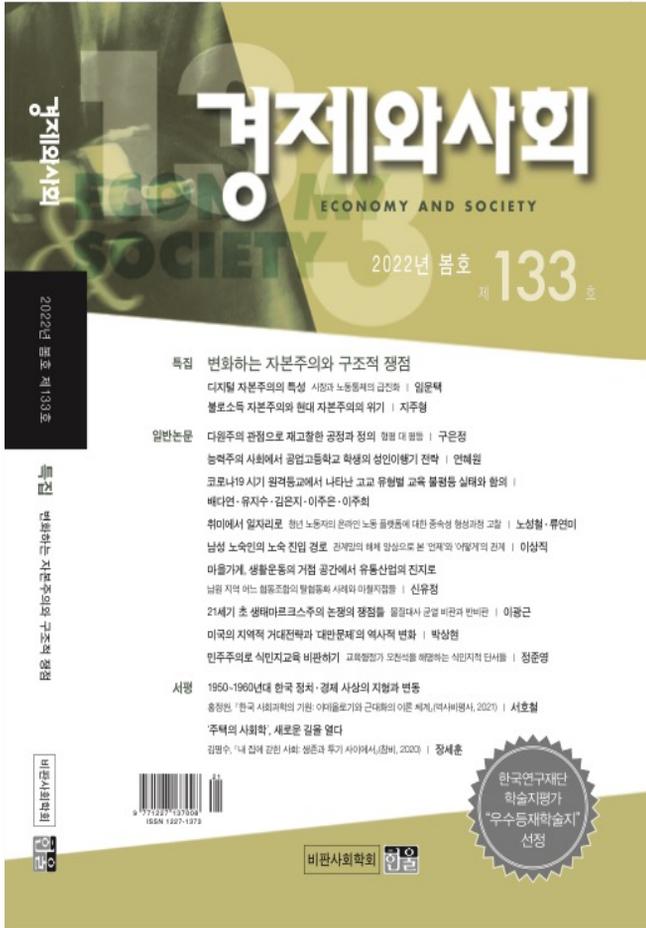
**발표1**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발표2** **자본주의 위기와 불로소득 자본주의**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토론** 박찬중(충남대 사회학과),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문의 sansahak1984@gmail.com

『경제와사회』 2022년 봄호(통권 제133호) 목차



■ 특집: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구조적 쟁점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임운택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지주형

■ 일반논문

다원주의 관점으로 재고찰한 공정과 정의: 형평 대 평등

구은정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

연혜원

코로나19 시기 원격등교에서 나타난 고교 유형별 교육 불평등 실태와 함의

배다연·유지수·김은지·이주은·이주희

취미에서 일자리로: 청년 노동자의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형성과정 고찰

노성철·류연미

남성 노숙인의 노숙 진입 경로: 관계망의 해체 양상으로 본 '언제와' '어떻게'의 관계

이상직

마을가게, 생활운동의 거점 공간에서 유통산업의 진지로: 남원 지역 어느 협동조합의 탈협동화 사례와 미찰지점들

신유정

21세기 초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의 쟁점들: 물질대사 균열 비판과 반비판

이광근

미국의 지역적 거대전략과 '대만문제'의 역사적 변화

박상현

민주주의로 식민지교육 비판하기: 교육행정가 오천석을 해명하는 식민지적 단서들

정준영

■ 서평

1950~1960년대 한국 정치·경제 사상의 지형과 변동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역사비평사, 2021)

서호철

'주택의 사회학, 새로운 길을 열다

김명수,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창비, 2021)

장세훈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33호는 DBpia를 통해 3월 말부터 원문이 공개됩니다.

※ 회비납부 회원들에 한하여 원문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논문이 포함된 저널레터로 우선 송부할 예정입니다.

『경제와사회』 2022년 봄호(통권 제133호) 머리말

경제와사회  
머리말

## 바이러스, 전쟁, 자본주의

주은우

(비판사회학회 편집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한국에서는 뒤늦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늘을 찌를 기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구적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였다는 진단이 맞는 주장인지도 모르겠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 여유를 찾나 싶기 무섭게 인간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하긴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의례화된 형태로 상징화된 세계대전이 미리 치러 지기는 했다, 방역 전쟁을 동반하며. 게다가 도핑과의 전쟁까지 함께.....

물론, 백신을 싹쓸이한 선진국들이 그러저럭 방역 완화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동안 세계 곳곳의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통계 집계가 무의미 할 정도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염과 죽음의 공포와 무기력 속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었으며, ‘지구촌’의 지원은커녕 별다른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푸틴(Vladimir Putin)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냉전 질서 붕괴와 소련 해체 이후 30년 동안 차츰 유럽의 문턱이 되어온 덕에 비록 전쟁이 가져온 끔찍한 고통과 비탄에 처했음에도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뜨거운 연대와 거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외롭지 않은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반면,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로나 한결같이 비서구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과 내전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인식도 기억도 해주지 않는 무참한 인명 살상과 파괴가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피의 저항도 어느덧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전쟁도 그렇지만 바이러스도 자본주의에 우호적인 것 같다. 비릴리오(Paul Virilio)의 표현대로 자본주의는 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와 ‘군사 프롤레타리아트’의 고향을 짜내며 발달해 왔고, 대규모 감염병이 과잉인구 문제를 해소하고 결국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성장을 초래해 온 인류의 역사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William McNeill)의 용어를 이용하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시 기생 체계’상의 일대 사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거시 기생 체계’상의 폭발 역시 기왕에 진행되어 오던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더 촉진하고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면 계속)

『경제와사회』 2022년 봄호(통권 제133호)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 문명에 거대한 변혁을 초래하고 우리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한 줌의 인간들이 절대다수의 가치 생산 활동을 이용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거시 기생 체계의 자본주의적 운영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고 더 극단화되는 것 같다. 방역 체계의 가동과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에 자원이 집중 투여되는 가운데 디지털 정보시스템은 확대일로를 걷고 방대한 데이터가 국가와 의료·바이오 산업을 필두로 한 자본에 집중된다.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각자도생의 노력만큼 전자상거래는 팽창하고 각종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 정보와 데이터가 빛의 속도 혹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의 이동이 멈춘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조차 각종 상품과 물자는 거침없이 시공간을 가로질렀으며, 팬데믹 상황이 다소 진정된 듯싶었을 때부터는 공급망 사슬의 교란에 의해 또다시 인간의 삶을 압도하며 우리가 상품물신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진정으로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반면, 지구적 수준이든 일국적 수준이든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온갖 분야의 각종 투기 자본들, 무엇보다 선진국 정부들의 무조건적 지원을 등에 업은 초국적 생명자본은 천문학적인 이윤과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절대적인 고통을 바탕으로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버는 일은 전쟁에서도 항상 되풀이되어 왔으니, 지구적 연결망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하더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런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민간인들이 위성 지도를 이용해 러시아군에 관한 정보를 발견·분석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널리 공개하며, 투항한 병사를 즉석에서 가족과 영상통화하게 하는 심리전이 수행되고, 전쟁 관련 비용들이 가상화폐로 지불되기도 하는 등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서의 면모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기존 경향이 더 빠르고 불가역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주장했던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같은 재난의 역할처럼,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대체·전환하는 디지털화와 금융화를 전면화하고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된 초격차 사회를 초래하는 현 단계 지구적 자본주의의 기본 경향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정립하는 ‘충격요법’으로 기능하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이후 각종 음모론들이 횡행해 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음모론은 아무리 황당해 보여도 한 톨의 진실은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팬데믹(pandemic)이 엔데믹(endemic)이 된다는 것은 달리 보면 재난에 의한 자본주의의 공고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음면 계속)

『경제와사회』 2022년 봄호(통권 제133호) 머리말

그리고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코로나19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새로운 팬데믹의 출현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면, 변화된 자본주의의 공고화 과정은 위기의 연속으로서 진행될 것일 게다. 사실 이견 늘 그랬던 자본주의의 정상적 과정이다.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갈파했듯이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부단히 변혁함으로써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충격과 혁신을 통해 자신을 영구히 실현한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과 개입도 영구히 지속되어야 하는 셈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

이번 호 특집은 그래서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구조적 쟁점’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현 단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논리를 해부한다. 임운택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는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한, 그리고 지주형의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한다. 이 두 논문은 해당주제에 대한 부분적 탐색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본주의와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현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근본적 수준에서의 심도 있는 이해를 얻게 해줄 것이다.

(끝.)

『경제와사회』 133호에 게재된 특집논문의

자세한 내용을 3월 31일(목) 오후 7시,

비판사회학 콜로키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2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구조적 쟁점**

**3월 31일(목) 오후 7시**

참가 | Zoom (회의실 ID 919 2651 3503 / 암호 516444)

---

**사회** 이정연 (서울여대 교양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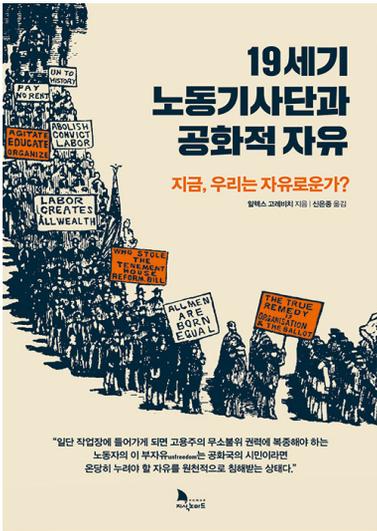
**발표1**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발표2** **자본주의 위기와 불로소득 자본주의**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토론** 박찬종(충남대 사회학과), 구분우(창원시정연구원)

문의 sansahak1984@gmail.com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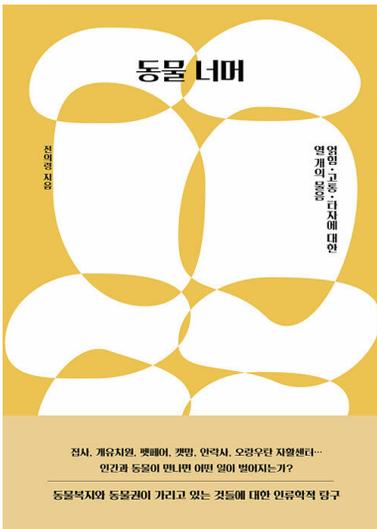
## 19세기 노동기사단과 공화적 자유

지식노마드, 2022년 1월, 472쪽

[자세히 보기](#)

저자: 알렉스 고레비치, 옮긴이: 신은중(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공화주의란 '자유'에 관한 이론이다. 그동안의 공화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자유의 제도화에 대해 천착했다면, 구레비치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자립'을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했던 이론적, 실천적 노력을 19세기 노동기사단의 역사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구레비치는 공화적 자유의 보편화와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 임노동의 해방을 기획한 19세기 노동기사단의 지향을 '노동공화주의(labor republicanism)'로 명명한다. 노동공화주의는 노동에서의 공화적 자유 구현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공화적 자유란 지배로부터의 자유, 곧 비지배 자유가 핵심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대조된다.



## 동물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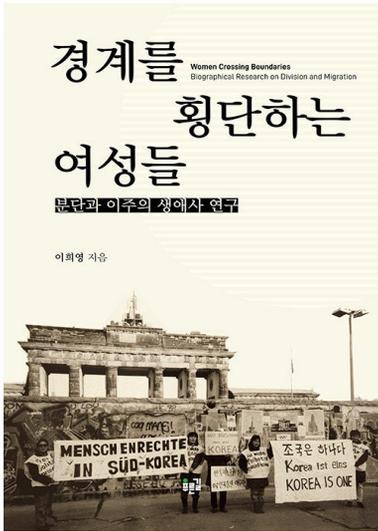
돌베개, 2022년 3월, 189쪽

[자세히 보기](#)

저자: 전의령(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동물해방·비건·동물복지·동물권...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논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일방적인 폭력을 되짚으며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타자와 고통에 대해 사유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동물 너머』는 이러한 작업이 지닌 가치와 의의를 존중하되 시선의 방향을 비틀어보자고 제안하는 작은 외침이다. 동물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담론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물 '넘어' 존재들을 두루 아우르며 기존의 동물 담론 '너머'에 산적한 문제들을 마주하자는 것이다. 이에 인간과 동물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10가지 장면을 인류학자의 눈으로 찬찬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10가지 물음을 던진다.

회원신간소개



##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들

푸른길, 2022년 2월, 432쪽

[자세히 보기](#)

저자: 이희영(대구대학교 사회학과)

20세기 한반도의 분단을 겪으며 국경을 넘어 이주한 한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독일과 한국에서 남북한 여성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생애 경험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들』로 엮었다. 유명하고 권력 있는 여성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보통 사람-여성들이 분단과 이주를 경험하며 구성하는 삶의 특징을 살피는 동시에 이것이 시사하는 사회역사적 함의를 고찰했다. 특히 21세기 '이주의 여성화'로 압축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 정치적 사태가 교차하며 전개된 삶의 과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으려 했다.

## 정치경제학 강의노트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1월, 370쪽

[자세히 보기](#)

저자: 류동민(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이 책은 저자가 이십여 년 넘게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의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원론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중급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수리적 분석에 이르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벗어나 유연한 이론과 최신의 분석도구를 소개함으로써, 마르크스 경제학이 현실을 설명하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인 책. 마르크스 경제학 이외의 비주류경제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자 한 책.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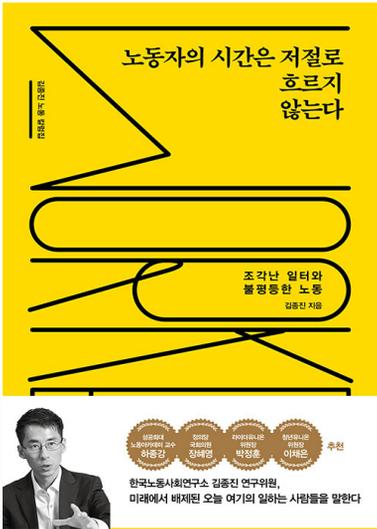
## 존버씨의 죽음

오월의봄, 2022년 1월, 364쪽

[자세히 보기](#)

저자: 김영선(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 책 《존버씨의 죽음》에서는 본격적으로 과로죽음(과로사·과로자살) 문제를 다룬다. 과로 죽음의 '과로'를 조명해 과로죽음이 과로+성과체제가 불러일으킨 필연적인 죽음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밝힌다(과로+성과체제란 과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경쟁적인 성과체제가 덧대진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가 만든 개념이다). 즉 존버씨의 과로죽음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임을 명확히 규명한다.



##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롤러코스터, 2022년 1월, 292쪽

[자세히 보기](#)

저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이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UN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오늘날 노동자의 상황과 일터의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기업의 종류나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이 다양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접근방식도 더욱 입체적이고 세밀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청년문제 등 21세기형 노동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오고, 정책을 생산해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이 오늘의 노동문제, 지금의 일터와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세상에 꺼내어본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2022년 1월 7일. 전임-신임 집행부간 인수인계
- 2022년 1월 18일. 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2022년 1월 26일.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운영위원 전원)
- 2022년 2월 7일. <한국자본주의 연구팀>, <진보정책 연구팀> 1차 모임
- 2022년 2월 22일. 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2022년 2월 25일. <진보정책 연구팀> 2차 모임
- 2022년 3월 1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사업 신청(연구위원장, 운영간사)

2022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임운택(계명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부회장 서동진(계원예대)
운영위원장 홍성태(고려대)	연구위원장 이정연(서울여대)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연구위원 김명수(전남대)	연구위원 김성운(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연구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연구위원 육주원(경북대)	연구위원 이태정(성공회대)
연구위원 전윤정(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연구위원 조은주(전북대)
정책위원 강민형(연세대)	정책위원 김재형(방송통신대)	정책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정책위원 박치현(대구대)	정책위원 백영경(제주대)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정책위원 이도훈(연세대)	정책위원 이정은(창원대)
정책위원 정수남(전남대)	정책위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위원 구분우(창원시정연구원)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김민정(성공회대)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김철효(전북대)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편집위원 장귀연(경상국립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편집위원 최 현(제주대)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김인숙(서울대)